

牛峯李氏大宗報

제 13 호

發行人兼編輯人：李 丙 曠
發行處：牛峯李氏大宗會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22
印刷處：서리별印刷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98번지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1995년 우봉이씨 대종회 총회 회장 인사

일만가지 같은 뿌리 한 근원 물줄기

만녕(광일 식품), 병무(아세아 시멘트) 사장 사무실 기금 선착으로 기탁



제25세손 대종회장 병주 (문학박사 동국대 명예교수)

낙엽이 귀근하는 늦가을입니다.

오늘 우리 대종회 총회를 이렇듯 성황리에 개최하게 됨에 있어, 우선 거룩하신 시조공을 비롯하여, 아울러 우리를 오늘에 있게 하여 주신 선조님의 음유에 삼가 경배를 올리며, 또한 경향 각지에서 참석하신 여러 종친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무릇 우리 우봉이문은 적은 종인으로도 대를 이어 남달리 빛나는 업적을 남겨 오셨습니다. 먼저 시조공께서는 고려 명종조에 정일품인 금자광록대부 벽상 삼중공신으로, 사패지 도리촌을 하사 받으셔서 못내는 우봉이씨의 본관을 이루었고, 그 아드님 이신 의열공께서는 당시의 동도인 경주의 반란을 평정하신 대공을 세우셔서, 금자광록대부 문하시중 평장사에 오르셨고, 이어 조선조에 접어들어서 성종조에는 정백리공이 계십니다. 다시 내려와 인조조에는 우의정을 지내신 일췌

우봉인은 적은 종인으로 빛나는 업적 남겨

정공이 계셨고, 또한 복학사를 고취하신 귀락당공과, 그 조카요 제자로서 우리나라 유학사상 강론으로 손꼽히시고, 또한 예론으로는 율곡-사계-신숙제-우암선생의 유맥을 이어, 당시 사색당쟁에 어수선한 무렵, 관혼상제 사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간주려 《사례편람》을 엮어내신 도암공, 그리고 그 학문을 이르신 화천공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다도 오히려 청나라에 그 명성이 도도한 우선공이 뚜렷하셨

습니다. 한편 비록 경술국치에 오점을 남기신 총리대신 일당공이 계십니다.

또한 광복 이후에는 문교장관을 지내신 두계선생과,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어령 문화평론가가 한결같이 우리 우봉이문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한편 기업가로는 봉명그룹을 일구시면서, 정치와 교육에도 위업을 남기신 경북문경의 대부이신 서봉공은, 일찍이 우리 대종회장으로, 우리의 대종회를 오늘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빛나는 통서는 떼떈하고 자랑합니다. 따라서 대종회의 캐치 프레이즈인 “우리는 한 일가, 서로 돕고 빛내자”에 부연해서, “우리는 같은 뿌리의 일만가지요, 한 근원의 온 물줄기라”는 자부심을 드세워서, 선조를 드높이고 친척을 사랑하여, 스스로 종친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앞장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종파를 따지지 말고, 비록 연세가 많은데 향렬이 낫다 해서, 피차가 꺼리는 폐단은 되도록 불식해야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역사가 있는 곳에 전통이 깃들고, 전통이 빛나는 곳에 남다른 특성이 생생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역사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으로 배

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빛나는 역사와, 남다른 전통을 현대라는 도가니로 도련해 내서, 정녕 21세기에 걸맞게 탈바꿈함이 우리의 삶이

명인 현관 배출한 집안의 금지 지켜

새로워지고, 우리 우봉이문도 다른 집안에 뒤지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서는 훌륭한 선조의 명성에 보답하는 지름길로 압니다. 이른바 세계하는 속절없이 외치거나 한다고 이룩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간직한 소담스런 노하우를 후손들에게 자랑차게 넘겨주는 내일의 조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우봉이문은 다소 이기적인 보수성이 강한 것이 흠이라지만, 선불리 남를 위한다고 허대지 말고, 우선 자기부터 수신제가를 한 연후에, 남과 더불어 즐기는 ‘여인동락’이 절실한 우리입니다. 사실 남부럽지 않은 집안인데도, 아직 대종회 사무실 조차 마련치 못했고, 또한 누이 어른에 못지 않은 용인도 암선생의 한천서원도 아직 복원을 못한 우리 우봉이문이어서, 실로 안쓰럽기 그지없어, 무능한 대종회장임을 매양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 종친께서는 각 나름에 맞게 기

꺼이 연보하셔서, 우선 조출한 사무실부터 차려야, 자꾸 계속될 하시는 우리의 대종보의 발간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주)광일 만녕 사장을 비롯하여, 아세아시멘트 병무 사장께서 앞장서서 길을 열어 주셔서 비로소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종친들이 뜻을 모아 영모당을 지어 시조공과 의열공의 위패

를 봉안하여, 제향을 올리게 하신 대전 광역시의 만녕 고문납과, 경북 안양에서는 성산계를 마련해서 흠어지는 일가의 일심일덕을 드높이셨음을, 이 자리에서 두루 대종회의 이름으로 크게 아로새겨 경건히 감사하면서, 끝으로 이번 우리 대종회 총회에서, 우리가 받드는 선조 도암공의 예문을 연구하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으실 이흥두님께서는, <도암선생의 예문과 사회변동>의 강연은, 우리 종인들로 하여금 영조조에 예송으로 얽힌 갖가지 시비를 납득하게 하여 주시니, 실로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이로써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열공 문중 종가를 개축 시조위패까지 모시는 永慕堂

1991년 9월 1일 세심공종가를 사당으로 개축해 준공식을 가졌던 永慕堂에서는 시조 문경공(공정)을 비롯한 의열공 종손 24세까지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이러한 큰일을 해 내게 된 것은 23세 세심재(洗心齋·洵用)공파 화수회(회장 昇茂)가 주관하여 대지 300평에 50평의 종가아락을 개조한 것으로 이 아락은 150년 된 목조건물로 표암공의 종손인 법세(28세)씨가 도시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것을 이월면에 살고있는 일가(약 50가구)들이 소중중의 이름으로 사들이 사당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후 대종회에 시조위패의 봉안을 건의하여(대종보 1991년 10월 31일 제8호 1면 참조) 논의한 끝에 시조공까지 모시게 된 것으로 이 영모당을 관리하고 있는 세심공공 문중 화수회는 명예회장 만녕 대종회 고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 명예회장 만녕
- 회장 승무(昇茂)
- 부회장 범진
- 범좌
- 범웅
- 총무 건무

영모당운영은 매년 음력 10월 1일 다음 일요일(금년은 양력 11. 26일)로 규정하여 시조 문정공을 중심하여 소(昭) 목(穆)으로 위패를 모시고 있다.

영모당 방문을 위한 가는 길은 경부선 옥천역에서 영동 무주 쪽으로 약 10km에서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대전 화수회의 모임 활성화

대전 화수회(회장 詰九·대종회 부회장)는 지난 6월 7일 월례모임을 갖고 대전 지역 일가들의 상부상조 활동과 친목을 도모하는 일들을 서로 생각한다는 모임 취지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회원들중 화수회운영에 관심이 깊은 일가 10명이 매월 모임 수 있는 6월 계(契)를 조직하여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가평 회수회 총회 개최

지난 8월 4일 가평화수회(회장 민형)의 총회가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개울에서 일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대종회에서 무학 도유사, 무석 장계유사가 참석하여 총회는 더욱 뜻있는 회의가 되었다.

이달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敏衡
- 부회장：周衡·丙天(유인)

감사：詰衡·恒茂(유임)
간사：茂榮·茂貞·茂錫·範善·範哲

대종회 사무실 설치기금 설치기탁 운동 전개

대종회에서는 작년 11월 대종회 정기 총회에서 발의되어 그동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종회 사무실 마련 협찬을 위해 서신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병주회장은 서신에서 사무실 설치 기금은 그동안 5천 2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무실 설치 목표액인 2억원 기금에는 아직도 미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무실 설치 계획은 대종회 발전에 토대로서 당연 과제인 세보 증보판사업을 비롯한 종친간 유대강화, 선조유물 관리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핵심을 이루는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종회는 설치기금을 기탁한 종인에 대한 한 예우로 앞으로 발간할 세보에 기탁자와 그 아버지 명단을 실고, 또한 방명록 등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월파(月坡)공의 화수회(花樹會)시 풀이

李 丙 疇 (文學博士 · 우봉이씨 대중회장)

지난 달 대중회 도유사 [李茂學]에게서 어렵사리 구한 월파(月坡) 이병규(李丙圭)공의 <연행일록>(燕行日錄)의 복사 초본을 보내왔다. 그렇지 않아도 <우봉이씨세보>(곤원 1021면)에 보면 월파공에게는 <연행일록>을 비롯하여 <유집> 2권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서 워낙 문적이 드문 우리 집안에서 두루 수소문했었는데, 미처 입수치 못했던 터여서 실로 반갑게 통람했다. 더구나 거기에는 도중에 우리 우봉이씨의 관향인 황해도 금천(金川)에서 종친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도담계 화수회(花樹會)를 열고, 그를 소재로 시를 지어 덧붙인 호젓한 <화수회음>(花樹會吟)과, 금천 관소를

을 <제금릉관>(題金陵館)시가 있어 여러 종친들과 더불어 읽기 위해 번역해서 옮기기로 했다. 이 <연행일록>의 저자 월파 이병규공은 철종 1년(1850)에 낳아 내시교관(內侍敎官)을 거쳐 중추원(中樞院)의 의관(議官)에 승진하여 고종 41년(1904)에 돌아서 자(字)는 사현(士顯)이요, 호가 월파다. 아버지는 정 5품인 통덕랑(通德郎, 李鶴九, 1808~1891)으로 그 맏이다. 문학에 조예가 있어 중국의 사신을 따라 북경에 들어가서 당시 한림(翰林)인 장세준(張世準)과 수창을 나눈 바도 있다. 그 수행 당시 날마다 보고 듣고 겪은 바를 일기로 쓰고, 매일 그 감흥을 시로 읊어 걸

쳐 갔다. 월파공은 우리의 시조 문경공(文景公, 1137~1211)의 둘째 아드님(옛 <명외보>에는 셋째)이신 금자광록대부 태부 문하시랑 평장사 판이부사로 일찍이 동경(東京)인 경주의 반란을 평정(1233)한 대공을 세워 명칭이 드높아, 장군들이 자꾸 찾아와 아예 병을 청탁하고 출몰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 인품을 칭송했으며, 고종 38년(1251) 윤 10월 3일 돌아가자 임금이 크게 애도하여 백관에게 회장을 명하고 영의의 시호를 내렸고, 충헌왕(忠憲王)의 교서(敎書)까지 받은 이자성(李子晟)공의 23대손이다. 한편 저서로 <유집> 2권이 있는데, 그 서문은 판서인 신기선(申箕善, 陽園, 1851~1908)이 썼다고 <우봉이씨세보>에 실렸는데 아직 못했다. 그의 손자(駿茂, 1918~1943)는 왜정의 강제징병인 학병(學兵)을 불응하고 소집일에 병원에 피하여 극약을 복용하고 요절하자, 모두 예석하게 여겼다고 전한다. 이제 월파공의 <연행일록>으로 옮긴다. 그 첫 머리에 실린 서언에서 『내 나이 스물넷인데 생애에 기이한 장관을 들봄이 없고, 살면서 크고 훌륭한 바도 없고, 또한 읽는 바는 옛분의 지계미가 아님이 없고, 보는 바는 궁벽한 시골의 잘달은 무덤에 지나지 않아 마음이 개운치 않고, 문사들이 갖춘 책과 같은 지녔어도 울적함을 펴지 못하고 지냈었다. 이윽고 계유년(고종 10년, 1873) 10월에 종친으로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이신 도은(陶隱) 어른(李鎬翼, 1850~1908)께서 마침 임시직으로 정사에 선임되시어 북경으로 부임을 명령받으시자, 나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므로, 내 진작부터의 소원이어서 마침내 가벼운 행장에다 조출한 견대를 메고 떠나면서, 가는 노정을 대강 기록하여 행록을 삼는다.』

군이 왜국정착을 고수하여 신미양요(1871) 이후 척화비(斥和碑,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요지에 세워 오직 청나라와만 내왕하던 어수선한 시국이였다.

이 고장이 천리라 멀다고 들 말하지 마오
당년에는 당연히 한 집안의 친척이니.
지금도 고소망의 의리를 본받지 못하니
오나라땅 범중엄 부자의 어짐에 부끄럽다.

정오에 임금께 하직을 하고 서대문 밖에 있는 모화관을 나와

이어서 <연행일록>에는 떠나는 1873년 음력 12월 24일부터 당일의 일진과 날씨는 물론 도중에 쉬며 점심을 든 장소, 그리고 유숙한 관소(官所)와 임시거처인 행대(行臺)까지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정오에 임금께 하직을 하고 서대문 밖 모화관(지금의 영천 독립문 앞의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관)을 나와 무악재 너머 흥제원에 이르러 여러 벼슬아치들의 배웅을 마치고 떠나 삼경(三更, 밤 11시)에 고양(高陽) 벽제관(碧蹄館)에서 잤다. 이에 끝에 칠언시인 <흥제원에서 여러분을 작별하고>(弘濟院 別抵公)과 <밤에 벽제관에서>(夜諸碧蹄館)를 덧붙여 문사로의 솜씨를 끼쳐 놓았다. 그 뒤 26일에 개성에 닿아 머물고는 역시 <송도를 회고하며>(松京懷古)와 <선죽교에서 걷는 생각>(善竹橋志感)을 남기고서, 그 이튿날인 27일에는 우리 우봉이씨의 관향인 금천(金川) 고을에 닿았는데, 날씨는 갓지만 바람기가 자못 차가웠다고 적고 있다.

진시(辰時, 오전 8시) 관소[개성]를 떠나 금천(金川)에서 점심을 먹다. 이 고을은 곧 우리 우봉이씨의 관향이다. 여러 종친 10여인이 내기 목고 있는 임시관소인 행대(行臺)로 찾아와서 술과 음식을 벌여놓고 둘러앉아 화수회를 했다. 밥을 먹은 뒤에 초경(初更, 오후 8시)쯤에 길을 떠나 평산(平山)에 이르러 쉬고 잤다. 이 관소의 통관(通判: 副官)인 정숙조(鄭翹朝)가 나와 인사했다. ○고을 사람인 서호(徐浩)와 그의 중형제가 술을 받아와 만났다. ○이날 백리를 걸었다.

花樹清樽倒幾巡 滿堂和氣藹生春
嘯喘言語猶知禮 淳朴衣冠亦耐貧
此地休言千里遠 當年自是一家親
如今未效蘇莊義 慚愧吳中范氏仁

금릉관(題金陵館)에 금천의 아전들이 날렵하고 다정하니
모두가 가진게서 백성을 사랑하신 덕분이라.
십이년 전에는 벼슬 못하니
오늘은 사신따라 북경에 가는 길이다.
金陵椽屬便多情 盡是家君遺愛氓
十二年前希衣我 乘槎今日薊門征

<燕行日錄 上>

게시판

등정 ▲ 丙疇(대중회장) 6월 7일 대전화수회 6월 모임에 참석. 수학 도유사, 병호 유사 수행 ▲ 丙天(중무위원) 조계종 중앙 장학회 감사 및 사단법인 국민예술협회 서예부 이사 선임 ▲ 茂卓(중무위원) 남해화학(주) 부사장 취임 ▲ 증무위원회 개최(10. 2) 종로 한일관 ▲ 昌茂(중무위원) 아세아제지 부사장 취임

결혼 ▲ 丙疇(회장) 아드님 敏衡군 신부 金明煥씨 따님 金眞亨양 5월 6일 12시 30분 소피텔 엠버서더 2층에서 결혼식 ▲ 丙天(중무위원) 차남 原寧군 신부 韓建洙씨 따님 韓美淑 양 7월 21일 향군회관 연리지에서 장에서 결혼식 ▲ 健寧(대중회 감사) 차남 天茂군 신부 이윤근씨 3녀 정민양 9월 15일 사당동 그랜드 웨딩홀에서 결혼식 ▲ 丙泰(대중회 보 주간) 장녀 垠娥양 한양 趙信行씨 장남 成厚군 10월 10일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 2층 샴페인홀에서 결혼식 거행

부고 ▲ 鳳九(대중회 고문) 7월 18일 숙환으로 삼성중앙의료원에서 타계 친안공원묘지 안장 ▲ 學寧(승실대 경제학과) 모친(청송 沈씨 賢福 · 피아니스트) 1월 23일 지병으로 서울대 학병원에서 타계, 김포군 월곡면 개곡리 선영에 안장 ▲ 晚寧(부회장) 10월 19일 85세를 1기로 타계, 장지 청원군 선산, 무창, 무항, 무진 부친상

금천에서 점심먹고 종친 만나 화수회 열어

○ 화수회음(花樹會吟) 종친회에서 읊다
종친들이 술동일 놓고 몇 순배를 기울이니
학병원에서 거나해서 몸기운 나쁜한 듯,
머뭇거리는 말에는 아예 예도를 알아차리고
순박한 옷갓차림 또한 가난을 건디누나.

결산 보고서

(1994. 10. 11~1995. 10. 31)

I. 수입지부

| 적 요 | 금 액 |
|----------------|------------|
| 1994년도 이월 잔액 | 33,447,788 |
| 1994년도 대중회 찬조금 | 7,540,000 |
| 감사 민영채 찬조 | 10,000,000 |
| 총무위원 병부씨 찬조 | 10,000,000 |
| 1994년도 대중회 회비 | 2,690,000 |
| 사례편람 48권 | 480,000 |
| 액 자 3개 | 60,000 |
| 예금이자 | 1,168,891 |
| 총무회의 잔금 | 54,300 |
| 수 입 계 | 65,440,979 |

II. 지출지부

| 적 요 | 금 액 |
|-----------------------|------------|
| 94. 대중회 경비 | 10,585,900 |
| 우편발송 및 인쇄비 | 939,040 |
| 상품등 구입 | 974,750 |
| 문구류등 구입 | 356,400 |
| 타올구입의 | 841,210 |
| 기념품등 구입 | 2,429,000 |
| 당일 식대등 | 4,047,500 |
| 상 금 | 500,000 |
| 투표시 구입 | 190,000 |
| 운임 등 기타 경비 | 308,000 |
| 대중회보 발간비(인쇄·편집 및 원고료) | 620,000 |
| 재산세 94. 95 | 409,640 |
| 경 조 비 | 730,000 |
| 병 천 중무위원 병문안 | 100,000 |
| 건 영 중무위원 축의금 | 100,000 |
| 승 영 중무위원 병문안 조화 | 180,000 |
| 무 상 유 시 병문안 | 50,000 |
| 병 국 중무위원 축의금 | 100,000 |
| 만 념 감사 축의금 | 100,000 |
| 무 석 장계유사 병문안 | 100,000 |
| 청장년회 지원 | 500,000 |
| 전의 타우공 사당 참배 | 200,000 |
| 옥천 화수회 찬조 | 100,000 |
| 청장년회 선영 순례지원 | 300,000 |
| 95. 대중회의장 예약 | 200,000 |
| 업 무 경비 | 30,000 |
| 95. 대중회 준비 | 1,565,439 |
| 옥천 영모당 찬조 | 200,000 |
| 계 | 15,440,979 |

國史上的牛峯人

선군(先君: 돌아가신 아버지)의 휘(諱: 돌아가신 어른의 합자)는 유겸(有謙)이요, 자(字: 관례한 뒤 새로 지어 부르는 다른이름)는 수익(受益)이시니, 본관은 우봉(牛峯: 황해도 금천)이다. 시조의 휘는 공정(公靖: 1137~1212)이시니, 고려에 벽상삼한 삼중공신(壁上三韓三重功臣)으로 벼슬은 문하시중(門下侍中)이었다. 그 후대에 높은 벼슬이 연이었으며, 조선왕조에 접어들어 휘 길배(吉培: ?~1440)는 벼슬이 도관찰사(都觀察使)에 이르렀으니, 선군의 6대조가 되신다. 고조(高祖)의 휘 승건(承健: 1452~1502)은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뒤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추증(追贈)되었고, 증조(曾祖)의 휘 심(諱: 1452~1502)은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장례원(掌隷院) 사의(司議)시요, 조(祖)의 휘 지신(之信: 1512~1581)은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이요, 고(考: 돌아가신 아버지)의 휘 할(劼: 1505~1592)은 승의랑(承議郎)이요, 비(妣: 돌아가신 어머니)는 한산이씨(韓山李氏)이니, 목은(牧隱: 李穡: 1328~1396)의 후손으로, 경기관찰사 휘 청지(淸之)의 손자인 증승지(贈承旨) 휘 공로(公潞)의 따님이시다. 선조(宣祖) 19년(1586) 7월 19일 무신(戊申)에 서울집에서 선군을 낳으셨다. 선조 25년(1592)에 아버님의 상사를 당하셨다. 그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병들이 서울에 들이닥쳐, 왜집안 식솔이 모두 경기도 양주(楊州) 홍복산(洪福山)으로 피난을 가게 되셨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 유모(혜주김씨)가 선군을 업고 양식을 얻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왜적 만나나 유모가 대신 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군은 별 탈이 없이 모면하시고, 편모를 따라서 충청도 전의(全義)에 있는 선산 아래로 피난을 가셨다. 선조 30년(1597)에 왜적이 다시 전라도에 침입하므로, 곧 전의로부터 서울 남소문동(南小門洞)에 있는 외가댁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난리통에 집안 살림살이가 말끔히 불타 없어지고, 하인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졌으므로, 유모가 술을 팔고 떡도 팔아서 겨우 지내시었다.

선조 33년(1600) 봄 선군께서는 난리통에 미처 공부를 하시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직접 고을의 서기인 서리(書吏)를 찾아가서, 중국의 역사를 간추려 엮은 증선지(曾先之)의 「사략(史略)」 초권을 배우셨고, 이듬해에는 교관(敎官)인趙수륜(趙守倫)의 학문과 몸가짐이 여러 선비

들의 스승이 될만하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당장 그를 찾아가서서 공부를 시작하시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독실히 배우신 2년만에 장족의 진보로 경서(經書: 四書)와 사서(史書: 史記)를 두루 읽게 되시니, 갈

니, 대개 조선생이 경기도 평택현감(平澤縣監)으로 부임하면서, 조선생이 그 문하에서 재주가 있는 이를 가려서 신공(新公)에게 부탁한 때문이었다. 이어 조선38년(1605)에는 제상인 오윤겸(吳允謙·楸灘: 1545~1631)선생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셨으니, 이 무렵부터는 메양 의심이 나는 것만 몰아서, 자기 몸을 닦는 학문인 수기치인(修己治人)에 마음을 쏟아, 연구하고 실천 하심에 전력하셨다. 이어 광해2년(1610)에 강원도 금강산을 구경하시고, 기행인 「동유록(東遊錄)」을 남기셨다. 다시 이듬해에는 전라도 영암(靈巖)의 월출산(月出山) 및 여러 곳을 구경하시고 돌아오셨다.

광해 4년(1612) 사림(士林)에 화란이 일어나서 평택현감 조수륜선생이 모진 고문 끝에 옥중에서 돌아가자, 그 문인 수삼명과 함께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셨다. 광해7년(1615)에 광해군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모후(母后)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모(廢母)할 기미가 보이자, 같은 뜻을 가진 몇 사람과 의논하고, 홍무직(洪茂績·白石: 1577~1656)을 추대해서, 상소의 대표인 소두(疏頭)로 삼고, 강력하게 「인륜을 밝혀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셨다. 그리하여 홍무직은 귀양을 가고, 선군도 연루되어 진사(進士)에서 이름을 깎아버리는 삭명(削名)이 되셨다. 한편 광해 8년(1615)에 송(宋)나라 주자(走者: 朱熹: 1100~1200)가 지은 「주역계몽(周易啓蒙)」을 임금의 종실(宗室)인 덕신정(德信正)에게 강을 하셨다. 광해10년(1617)에 세상의 인심이 옛과 달라지는 것을 보시고, 산림에 숨어 사시려는 생각이 나서 서울 교외인 고양(高陽) 땅 화전(花田)에 있는 시골집으로 나가셔서,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낚으시며, 노모를 공양하며 음영(吟詠)으로 자오하시면서, 문을 닫고 외부와의 사귀기를 끊고, 거의 오륙년 동안 서울에 발자국 들여놓지 않고, 오직 교유하는 이는 다만 황시중(黃是中)과 나만갑(羅萬甲·鵬浦: 1592~1642) 등 약간인 뿐이셨다.

선군께서는 평상시에 행동하심에도 예의를 각듯이 지키시기에 스스로 힘쓰셔서, 이곳에서 보고 감화된 이가 많이 있었다. 광해15년(1623) 나라의 기강(紀綱)이 바뀌어,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하시면서, 산림에서 글을 읽고 학문과 행실이 있는 선비들을 무고하시고, 등용하셨으니, 곧 신독제(慎獨裁·金集: 1574~1656), 잠곡(潛谷·金增: 1580~1658), 성문준(成文濬·滄浪), 심척(沈惕)과 같은 10여인이었는데, 선군께서도 그 가운데 끼이셨다. 즉시 경상도 영천(永川)인 신녕현감(新寧縣監)에 제수되셔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스린 업적이 가장 뛰어나셨으므로, 경상감사인 민성휘(閔聖徽·拙堂: 1582~1647)와 어사(御史)인 이경여(李敬輿·白江: 1585~1657)가 계속해서 포상하시라는 계(啓)를 올려서, 임금께서 하사하시는 겹옷과 속옷인 표리(表裏)를 언거꾸 받으셨다. 그 때에 마침 서쪽 변방(滿)이 소란해서 거기에서 파송할 용병(用兵)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모두 견책을 받았지만, 선군의 신녕현감은 기일 내로 처리를 하셔서, 그 징병을 주관하는 이가 크게 칭찬하기를 「글을 하는 선비이러니 군무(軍務)에 어두울 줄 알았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인조 4년(1626)에 어머니의 상사를 당해서 벼슬에서 물러나셨다가, 탈상한 1629년에 대궐을 경호하는 위위사(翊衛司)의 위율(衛率)에다,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제수되셨다가, 곧 함경도 함흥판관(咸興判官)으로 전보되셨다. 함흥은 본시 큰 고을[府]로 일컬어지고, 또한 여기는 감사 밑에서 상관을 받들고, 하관을 거느리며 좌우를 응접(應接)하는 여가에, 학문을 권장하고 교화(教化)를 작흥(作興)해서 백성의 풍속이 크게 변하였다. 그러나 인조 9년(1631)에 햇불을 맡은 봉수직(烽燧直)의 잘못으로 판관직을 파면을 당하게 되셨다. 그런데 읍민들이 감사에게 호소하기를, 「원컨대 우리가 군량미 5백석을 바칠 터이니, 우리 어지신 판관님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하고, 여러 날을 두고 감영을 지키며 울부짖으며 호소를 했다. 그래서 계서서 서울 교외인 고양(高陽) 땅 화전(花田)에 있는 시골집으로 나가셔서,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낚으시며, 노모를 공양하며 음영(吟詠)으로 자오하시면서, 문을 닫고 외부와의 사귀기를 끊고, 거의 오륙년 동안 서울에 발자국 들여놓지 않고, 오직 교유하는 이는 다만 황시중(黃是中)과 나만갑(羅萬甲·鵬浦: 1592~1642) 등 약간인 뿐이셨다.

인조 11년(1633)에 새로 감사로 부임한 이명(李冥·龜村: 1570~1648)은 우리 집안과는 원수진 사람이어서, 이 기회에 분풀이를 하려고, 부임하는 그 이튿날에, 어떤 사건을 빌미로 조정에 보고하면서 선군을 파면시키려는 한편, 도리어 읍민의 호소하던 이를 사주해서, 왕명으로 지방관리의 비행을 조사하는 특사인 염안사(廉按使)에세 무고하게 시켜서, 못내는 조사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상감은 무고임을 통속하시고, 특명으로 호소한 백성들의 무고죄를 들어 방면하게 하셨다.

인조 14년(1636)에 병자호란에 강화로 피난을 가실 때에, 의병을 모집해서 서울 광나루를 지키시며, 한편 정부에 들어가서 여러 재생들을 보시고, 「널리 의병을 모집해서 생각밖에 일어나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순겸(副巡兼: 이인구·李敏求·東洲: 1589~1670)가 하늘을 쳐

光海君때 廢母論에 반대하여 상소 후 削名당해 弘文館 副提學 之 信의 손자 · 金長生의 문하생

만희당(晩悔堂) · 李有謙(行狀)

南宮 과제에서 壯元하고 · 경상도 대구 판관으로 덕망쌓아 글 · 逸休亭 李 翮 / 풀이글 · 대중회장 二十四世 손 丙疇

이 공부하던 동접(同接)들이 한결같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혀를 내 들었다. 드디어 남궁(南宮) 과제(課題)에서 장원(壯元)하셨으니, 당시 시제(詩題)인 「유산(遺産)」편과 같은 여러 작품은 다 훌륭한 작품이다. 선조 37년(1604년)에 승지(承旨)인 신응구(申應 · 逸退軒)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

1559, 1636)과, 동지(同知) 벼슬인 김덕겸(金德謙·靑降) 문하에서 수업하셨다. 그런데 선조39년(1606)에 백씨(伯氏·有敬)와 중씨(仲氏·有誠)인 두 형님의 상(喪)을 연이어 당하시자, 지나치게 애통하시다가 하마터면 당시까지도 위태할번 하셨다. 선조 40년(1607)에 당시에 유학자인 사계(沙溪·金長生:

丙子胡亂 때는 義兵을 일으키고 강화도에서 싸워

—모친 파평윤씨는 자결결심 불더미속으로 뛰어 들다 아들만 잃어—

다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비록 자네의 말이 아니더라도, 만일 적당한 기회를 만난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선군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적당한 기회라는 것은 어느 날을 가리켜 하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군대의 서기관인 윤명은 (尹鳴聲·思亭: 1601~1646)은 『그 반문은 참으로 명언이다.』고 하였다. 이윽고 강화도 갑곶(甲串津)의 방어진이 무너졌다는 전갈이 있자, 의병장 진창군(金昌君) 유정량(柳廷亮·素閑堂)이 말하기를, 『갑곶나무가 무너졌으면 판나루를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명령을 내려, 의병을 해산케 하였다. 길에서 적군을 만나서 국제관계에 남의 나라를 침범한 물의를 들어 항의하시는대, 말솜씨가 하도 엄격하셨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대우하지 못할 기상이 있으셨다. 당시 어떤 가족으로, 세 부인과 두 아들이, 혹은 필필 타는 불구덩이로 뛰어 들고, 혹은 칼을 맞아 죽어 되었는데, 오랑캐인 적병은 모두 죽일 수 없어서 그냥 버리고 간 사람도 보였다.

인조 15년(1637)에 선군께서는 형조(刑曹佐郎)와, 대령의 거마(車馬)를 관장하는 사복시(司僕寺)의 판관(判官)을 거쳐 첨정(僉正)에 승진되었고, 1639년에 순창군수(淳昌郡守)로 나가셨다가, 1642년에 갈려 돌아오셔서, 이듬해 다시 사복시 내승(內乘)에 제수되었고, 1644년에 첨지로 전임되었다가, 곧 경상도 대구판관(大邱判官)에 나가셔서 백성들을 안무하시는 여가에 향교(鄕校)에 나가서서 고을의 젊은이들을 모아두고,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와 송(宋)의 진덕수(眞德秀·西山: 1177~1235)가 성현의 정심(正心)을 논한 격언(格言)을 모은 「심경(心經)」등의 유향서를 의우게 독려하시고, 또한 관례(冠禮)와, 술을 마시는 예절인 「향음주의(鄕飲酒儀)」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하여 그 고을 사람이 한결같이 『우복(愚伏·鄭經世: 1563~1633)이 원님으로 다년간 뒤에도 처음 있는 일이다.』고 하였으니, 대개 그 분이 일찍이 경상관찰사로 부임해서 유학(儒學)을 숭상하여 좋아 교화한 때문이었다. 한편 선군께서는 당시의 문서를 털어서 양로원을 차려 주셨으므로, 노인들은 칭송해서 기리는 노래를 부르기를 『백여년 동안에는 처음 보는 성대한 잔치라.』고 하였다.

경상도 판관으로 덕망 쌓아

인조26년(1648)에 어명으로 지방에 파견된 어사(御史) 이정영(李正英·西谷: 1616~1686)이 선군의 치적을 들어 포상할 것을 위에 아뢰어서, 위에서 표리(表裏)한벌을 하사 받으셨지만, 상소를 올려 사양하셨더니, 임금께서 내리신 비답(批答)에 『강직하고 명량하고 청렴하고 간결(剛明廉簡)』

법대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

한 점이 특진함에 꼭 맞는 일이라.』고 하셔서, 더욱 알아주시는 은혜에 감응하셔서, 오직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시고, 아무리 권세가 있는 이에 대해서도 모든 일을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해서 전혀 굽히는 일이 없으셨다.

인조26년(1649)에 전라도 나주인 금성현감(錦城縣監)으로 나가셔서, 역시 모든 점을 법대로 처리하셔서, 권세가 있는 이의 원망과 비방이 찾아서 두어달만에 자리를 내어놓고 물러나셨다.

효종2년(1651)에 다시 김제군수(金堤郡守)로 나가셔서 임기가 끝나(瓜滿), 임금 앞에서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경연(經筵)에서, 신하의 아뢰는 소청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셨으니, 대개 태학사 채유후(蔡裕後·湖洲: 1599, 1660)가 전라도 무주(茂朱) 적상산(赤裳山) 사고(史庫)에 서적을 가져다 보관하고 오는 길에, 『호남백성들이 군수가 떠나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한다.』는 여론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서, 경연에서 아뢰어 이러한 특명이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는 법제 밖의 일이다.』고 말해서, 그 특명이 취소되었다.

금성현감 · 김제 군수도 역임하다.

효종5년(1654)에 경상도 성주목사(星州牧使)에 제수되었으나, 곧이 나가지 않으셨다. 이듬해 다시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전임되었는데, 실은 8월(中月)에 봉록으로 주는 정이었으나, 선군께서 관정하신 뒤로는 씌움을 절도 있게 쓰시고, 뒤로 새어나가는 것을 엄금하셔서, 도리어 남아둘게 되었으니, 이런 일은 처음있는 사단이었다.

말년에는 문인들과 조출한 모임 갖고 여생 즐겨

효종8년(1657)에 사임하시고, 다음해 다시 호조참의에 임명되었다가, 1659년에 사퇴하셨다. 이 뒤로부터는 여러 벼슬로 옮겨다니시며, 어떤 때는 대궐을 경호하는 숙위(宿衛)의 책임에 임명되었지만, 반갑게 여기지 않으시고 나가지 않으신채 집에 조용히 계시면서, 수양을 위주로 지내시고, 한편 늙은 동지인 여러분 가운데서 백현(白軒·李京奭: 1595~1673)과, 동명(東溟·鄭斗鄉: 1597~1673), 그리고 윤판추(尹判樞)와, 이승선(李承宣)과 같은 8, 9인과 더불어 조출한 잔치모임인 진솔회(眞率會)를 모방해서, 매월 초하루면 서로 돌아가며 초대해서 만년을 즐겁게 지내셨으니, 실로 『한 시절의 돈독한 일이라.』는 칭송이 두루 자자했다.

용인군 백천동에 유택 마련하여 안장하다.

현종4년(1663) 12월 20일에 병환이 나서서 안방인 정침(正寢)에서 운명하셨으니, 향년 78세이셨다. 겨우 보름이 지나자, 온 집안이 전염병에 걸려 한달이 넘어서야 돌림병은 끝이 나서, 현종 5년(1664) 4월 8일 오시(午時)에 경기도 용인남쪽 냉천동(冷泉洞·二東面泉里)에 새로 정한 추좌(丑坐·北北東) 미향(未向·南南西)에 장사를 올렸다.

선비(先妣) 숙부인(淑夫人)께서는 파평윤씨(坡平尹氏)로, 고려태사(高麗太師) 문숙공(文肅公) 윤관(尹瑄)의 후손이시다. 증조의 휘 응규(應奎)는 돈녕첨정(敦寧僉正)으로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이고, 조의 휘 인함(仁涵)은 형조판서요, 그의 휘 홍유(弘裕)는 벼슬에 나오지 않았다. 외조는 찬영성씨(昌寧成氏)로 휘 전(全鏞)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요, 영의정 여완(汝完)의 후손이요, 유수(留守) 세정(世貞)의 손녀요, 군수로 증참판(贈參判) 위(偉)의 따님이시다. 선비께서는 선조19년(1586) 6월 29일 병오(丙午)에 탄생하시어, 선군께 시집을 오셨으니, 자혜(慈惠)롭고 정정(貞正)하시며, 어감이 없지 않은을 받들어 모시셨다. 병자호란(1636)으로 강화가 함락할 즈음에 자결하시기로 다짐하시고, 먼저 불더미 속으로 뛰어들어 온몸이 모두 불에 그슬리셨

는데, 마침 두 아들이 덤벼들어 부축해서 겨우 위급한 지경을 모면하셨다.

어머니는 문숙공 윤판장군의 후손

현종6년(1655) 6월 초하룻날 운명하셨으니, 향년 70세이셨다. 그해 8월에 임시로 장사를 올렸다가, 10월 17일에 지금 용인 선군의 묘소에 합장으로 모셨다.

선군께서는 천성이 진하고 순수(醇粹)하시며, 곁에 꾸밈을 하지 않으시고, 총명이 뛰어나서 많이 보시고 기억력이 대단하셨다. 조용히 계시 때에는 일찍 일어나시고, 밤이 늦게야 주무시되, 병환이 계시지 않으면 한번도 누우시는 일이 없으셨으며, 제사는 정성껏 받드시고, 편모를 자효(慈孝)로 지극히 모시셨으며, 일가간에는 화목하시고, 하인들에게는 온혜롭게 여우만지셨다. 남의 잘한 일을 들으시면 반드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남의 위급한 일을 보시면 반드시 구제해 줄 것을 생각하셨다. 평생에 얻은 일이나 어떤 물건에 있어서 진정으로 대우하지 않으심이 없으셨으므로, 어떤 이나 갑복

벼슬 30년에 초가집도 장만하지 못해

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검소하고 간략함을 매양 지켜 오셨다. 일찍이 살림이 가난하고 근색할 때에도 한번도 남에게 구차스런 표정을 보이지 않으셨다. 여러 고을의 원님을 지내셨지만, 집안살림에 보탬 것은 생각지 않으셨고, 만년에 자제들이 비로소 몇 칸자리 집을 마련했더니, 선군께서 경계하시기를, 『내가 벼슬길에 나간지 30여년 사이에 일찍이 초가집 한채도 따로 장만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장성하게 되었으므로, 비로소 몸담을 곳이 생겼지만, 이는 나의 소원이 아니다.』고 하셨다.

여러 아들들이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이 높아지자 너무 지나치게 번성함을 걱정하셔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 5부자가 남다른 재주도 없이 외망되게 벼슬자리를 더럽히고 있으면서, 나라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그저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간곡히 훈계하셨다.

아들들 벼슬이 높아지자 근신당부

선군께 평생에 해오신 언행에 대해서 불초한 이 몸이 『행장(行狀)』을 찬술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만을 골로 뽑아서, 그 대강만을 기록한 것이다.

아들 다섯을 두셨으니, 격(勗)은 벼슬이 봉사(奉事)로, 감사 김상지(金尙之)의 딸에 장가들었는데, 자녀를 두지 못했고, 계취(繼娶)는 사인(士人) 이영언(李英彦)의 딸에 장가들어 딸 다섯을 두었다. 흠(愼)은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효사(孝死)했고, (뒤에 지금고양시 향동2리 선영에 효자비가 있다) 초취는 정랑(正郎) 심척(沈惕)의 딸에 장가들어 2녀를 두었고, 계취는 참판 오백령(吳百齡)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두었는데, 모자가 함께 병자호란에 강화피난대강에 빠져 죽었다. 상(翔·打遇: 1620~1690)은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이니, 목사 이성연(李聖淵)의 딸에게 장가들어 5녀를 두었다. 숙(翊·逸休: 1626~1688)은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정(正)인 박호(朴壕)의 딸에 장가들어 1녀 2자를 두었다. 막내인 익(翊·農齊: 1629~1690)은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教)로, 부사 박정(朴淳)의 딸에 장가들어 1녀를 두었으니, 갈방(察訪) 이돈(李惲)에게 시집가서 2남2녀를 두었다. 한편 측실(側室)에 남자 3인을 두었으니, 첫째 휘(暉: 1639~1693)(側室의 이름 字는 직번을 위로 썼다)는 1남1녀를 두었고, 다음은 습(習: 1649~1730)이요, 셋째는 어리다. 딸은 윤발(尹撥)에게 시집가서 1남을 두었다. 그리고 안팎에 여러 손자가 30여명인데, 격(勗)과 흠(愼) 및 두 자부 김씨와 오씨는 모두 효열(孝烈)로 인조때 충효를 說표창하는 정려문(旌門)이 하사(下賜)되었다. 아들 숙(翊)은 삼가 짓다.

붙임: 이 「민회당 행장」은 사본으로, 총참남도 연기군 전의면 사관정리 티우공(扈惠公)의 종손가의 소장인 『晚梅先生稿』권 4에 실려 있다. 이제 그 종손의 공무(公茂)의 협조와 대종회 도유사인 무학(茂學)의 지의로 몇부를 복사해서 비로소 공람에 이르렀는데, 우리 우봉이문은 선대의 문헌이 비교적 귀한 처지여서 이에 「行狀」만을 번역했다.

조선조 방목(榜目)에서 본 員外郎公 문중

역과(譯科)급제만도 승헌(承賢·15세)선조 등 서른 여섯분



茂學 도유사

그 나라의 정치외교 활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 국가는 고대로부터 주변국

의 관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역관의 활동은 중요하였다.

조선조 역과 방목을 통해 보면 우봉 이씨 원외랑공 문중에서는 36명의 선조가 역과에 급제하여 활동하였다. 조선조의 역과제도는 과거제도에서 잡과에 속해 있었으나, 조선조 초기(연산군 4년)부터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여 한학을 비롯한 몽골학, 왜학, 여진학(청학)의 4학을 학습한 후 초시(初試·45명을 선발)를 치

른 다음, 예조(禮曹)에서 복시(覆試·13명을 선발)과거를 본 후 급제하면 역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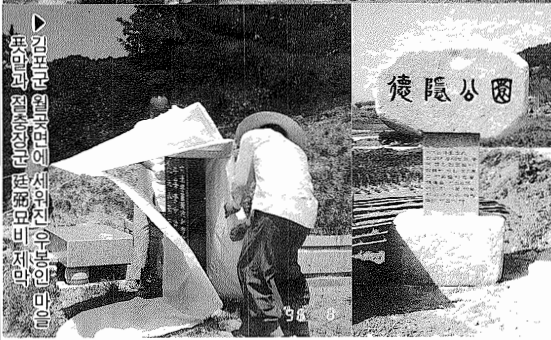
복시는 시년시(武年試)와 증광시(增廣試)가 있었으며, 조선조에서는 165회를 실시하여 2,845명의 역관을 배출했다. 원외랑공 집안에서는 15세의 승헌(承賢·甲寅生 父 折衝將軍 禮元)선대와 승남(承男·丙辰生 父 嘉善大夫 忠元)선대가 각각 3등으로 급제 등용되었다. 그후 원외랑공 문중의 전통을 잇듯이 21세의 우선공(藕船公: 尙迪·癸亥年 父 命裕)과 22세의 용호(用浩: 壬戌生 父 武科 尙臨)선대 등 36명이 등과했는데 대부분이 한학을 전공하였으며, 몽골학이 4분, 왜학 1명 등으로 우리문중에서 조선조 역관출신이 1.26%를 차지하고 있다.

원외랑공 문중에서 역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지낸 선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승헌(承賢·갑인생·인조 20 한학 敎誨正) 승남(承男·병진생·효종 1 한학 尙正) 유량(惟亮·경진생·현종 3 한학 敎誨嘉善同樞) 세석(世碩·기유생·현종 13 한학) 제담(齊聃·을사생·숙종 10 한학 三押物 尙正) 세휴(世休·병자생·숙종 46 몽골학 聰敏尙正) 희인(禧仁·계사생·영조 3 한학 敎誨嘉善同樞) 보인(輔仁·정해생·영조 3년

한학 尙正) 방욱(邦昱·신유생·영조 38 三押物 尙正) 방화(邦華·정유생·영조 39 한학 敎誨嘉善同樞) 정주(廷柱·무술생·정조 22 한학 次上通事 尙樞) 정석(廷奭·갑진생·순조 3 한학 敎誨正) 정직(廷稷·신축생·순조 3 한학 三押物 尙正) 정제(廷濟·순조 13 한학 奉事) 상직(尙迪·순조 25 한학 敎誨 知樞 郡守) 상근(尙根·병인생·순조 25 한학 偶語別遞兒 尙正) 상익(尙益·신유생·순조 27 한학 敎誨通政) 상건(尙健·임신생·순조 31 한학 敎誨嘉善同樞) 상진(尙晉·신미생·순조 34 한학 次上通事 嘉善同樞) 상필(尙弼·신미생·헌종 1 청학 別遞兒 判官) 용립(用霖·기

해생·철종 6 한학 聰敏主簿) 용준(用俊·병신생·철종 10 한학 敎誨正) 태준(台濬·갑인생·고종 10 한학 奉事) 태형(台衡·갑자생·고종 17 한학 奉事) 태정(台珽·임술생·고종 17 한학 奉事) 용급(用楫·기유생·고종 10 한학 奉事) 용민(用敏·계해생·고종 19 몽골학) 태익(台翼·무진생·고종 19 한학 奉事) 태환(台桓·기사생·고종 22 한학) 용문(用文·갑자생·고종 28 몽골학) 태현(台瑗·경신생·고종 10 몽골학) 세원(世元·갑술생·고종 25 한학) 용지(用地·임신생·고종 28 왜학) 태현(台鉉·갑술생·고종 28 한학) 용호(用浩·임술생·고종 28 몽골학)



영양최씨 할머니 지손들의 정성 깃든 두류리 마을

지난 5월 12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서는 우봉이씨 화수회가 성산재(聖山齋)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성관(成冠) 두류화수회 회장 주관 아래 병주 대종회 회장을 비롯한 무학 도유사, 무석장계 유사등 대종회 임원이 참석하여 이날 행사는 더욱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곳 경주시 안강유두류리의 우봉이씨 자손들은 임란중 만의(晩直·무과) 선조가 울미년에 왜병과 싸우다 전사하여 살길이 막연해진 영양최씨가 친정인 이곳 사박골로 세 아들을 이끌고 들어와 친정살이 하면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 그 자손들이 오늘날 사직공파의 핵심이 되리만큼 영양최씨가 기반을 잡아 발전시킨 곳이다.

당시 전 대종회장이신 수녕 변호사도 사직공파 후손으로 영양최씨는 92세까지 장수하였으며, 나라에서 정경부인의 증직을 받았다. 또한 사박골 후손들은 최씨 할머니를 우봉이씨 사직공 문중의 중시조모로 모시고 있다.

이곳에는 옛부터 최씨 할머니의 신당이 있었으나 6.25 전쟁 당시 파괴되는 시련끝에 지난 1960년에 尙武(전 국회의원)씨가 앞장서 오늘의 성산재를 중건하게 되었다.

타우유고(打愚遺稿) 우리집안 고전(古典) 읽기

지난 1990년 1월 30일, 17세기 후반 숙종조 유신(儒臣)이던 이상(李翹)이던 이 유고집은 그 동안 직손인 공무(功茂·연 1620~1690)의 시문과 문부씨가 병주회장의 구두점 손인 원무(元茂·전 대종회 감사·1992. 9. 14 작고)씨가 자비로 200부 한정판으로 발간한 타우유고(打愚遺稿·보경문화사발행)는 이 유고집에는 타우공의 교지(敎旨), 유묵, 묘소 및 봉이씨 집안의 대표적 보물인 동시에 우리나라 한문학계에서 조선조 정치사상 문헌 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타우공은 본시 종손인 도암(李縉)선생이 문건을 수집하여 공의 외손인 홍계희(洪啓喜)가 발행한 것으로 이 주자본의 초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으나 1928년 8월 대손인 하용(河用)씨가 초판의 원책자(6권3책)에 그 이후의 글을 추가하여 보충판을 타우유고로 이름하여

이 유고집은 그 동안 직손인 공무(功茂·연 1620~1690)의 시문과 문부씨가 병주회장의 구두점 손인 원무(元茂·전 대종회 감사·1992. 9. 14 작고)씨가 자비로 200부 한정판으로 발간한 타우유고(打愚遺稿·보경문화사발행)는 이 유고집에는 타우공의 교지(敎旨), 유묵, 묘소 및 봉이씨 집안의 대표적 보물인 동시에 우리나라 한문학계에서 조선조 정치사상 문헌 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유고집에는 타우공의 교지(敎旨), 유묵, 묘소 및 봉이씨 집안의 대표적 보물인 동시에 우리나라 한문학계에서 조선조 정치사상 문헌 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유고집에는 타우공의 교지(敎旨), 유묵, 묘소 및 봉이씨 집안의 대표적 보물인 동시에 우리나라 한문학계에서 조선조 정치사상 문헌 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절충장군 정필(廷弼)공 비건립

-김포·강화문중에서 5백여 만원 들여-

지난 8월 15일, 김포군 월곡면(개곡리 66)에서는 의열공 문중의 장사량(嫩尊·15세) 선조와 절충장군 겸 첨지 중추부사를 지낸 廷弼(정필·16세)공의 비석을 건립했다.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소를 밭초하고 있는 김포·강화문중에서는 이날 문중회장 丙濬(병준)씨를 비롯하여 丙泰 대종보주간, 그리고 이곳 문중 일가들이 참석하여 조상의 은덕을 추앙하고 자손 대대의 번영을 다짐했다.

그런데 이곳 월곡면에서는 1985년 4월 5일 元九(전 대종회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덕랑(胤·13세) 비석을 시작으로 소중 문중별로 조상의 비석을 세워 선산의

치수관리는 물론, 늘어가는 묘소의 식별을 위해 비석을 건립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5월 1일에는

동리마을의 이정표를 세우고 돌안마을의 유래까지 알려주는 덕은공원비를 세워 더욱 우봉이씨 마을임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 세워진 장사량공(돈)과 절충장군(정필)의 시석 건립의 총 공사비는 5,54,500원이다.

백여년만에 새로 단장된 용인군 이동면 감찰공 문중 묘역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만에 거쳐서 실시된 감찰공 문중 선조묘소가 백여년만에 새로 단장되어 이동면 일대가 자손들의 긍지를 한층 더 갖게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조선조 때부터 만희당(有謙)공을 비롯해 일휴정(翺), 귀락당(晩成), 도암(緯) 선조들이 계신 곳으로, 그동안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도암공 묘소조차도 비석을 비롯해 묘표, 망부석, 축대 등이 파손된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감찰공 문중의 병호(대종회 유사)가 앞장 서서 모금된 1천 7백 56만원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 시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대대적인 공사를 위해 몰심양면으로 협조한 자손들은 다음과 같다. 병철(부회장), 병천(종무위원), 병순(종무위원), 건녕(감사), 승녕(종무위원), 만녕(감사), 병호(유사), 무학(도유사), 종무(종무위원), 감찰공 문중 용인 소중중

대중회 운영에 대하여

금년들어 일가들의 지방 소식은 대중회를 압도하는 눈부신 활동으로 대단한 열성과 헌신적으로 문중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일가들의 조직을 살펴 보면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청주화수회를 이끌어 왔던 대중회 부회장인 丙玉씨의 일가를 위하는 마음은 대단하였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구(회장 덕녕), 대전화수회(회장 赫九), 가평화수회(회장 敏衡), 경주 안강의 斗流화수회(회장 成冠), 황성 목계리의 대사간공 문중, 김포의 의열공과 감찰공 문중을 합하여 조직된 강화/김포 문중(회장 丙濬) 등은 문중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체로 활동 내용은 일가간의 우의증진과 선조선양 및 묘소관리, 전통문화 발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최근에 있어서는 경제력이 있는 문중에서는 장학금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는 자라나는 후세들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장학금 제도는 경제적 조건이 뒤따라기 때문에 함부로 거론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라 생각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하고 발전적인 견지에서 구상해본다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장학제도에 대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조 선조 인조 때 학자인 홍만중(洪萬宗)이 갈파한 글에서 장학제도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가 있다. 홍만중은 처사물리(處事物理)에 대해서 공자의 삼계도(三計圖)

를 예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

즉, 일평생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고, 일년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에 계획은 아침에 있다. 그러므로 어려서 배우지 못하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만일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이 되어도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일을 이루지 못한다. (중략...)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쌓아 두었다 그 해도 자손이 반드시 그 금덩어리를 보관해 둔다는 보장도 없으며, 책을 쌓아 두었다가 물려 준다해도 그 자손이 그 책을 읽으리라고 가약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음덕을 쌓아 두었다가 남모르게 자손의 장구한 계획을 세워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자녀를 가진 이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이지만, 오늘날에는 향학열이 지나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과외로 입시전쟁에 휘말려 있다. 그러나 대학에 간다는 것은 부모의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장본인들의 능력과 노력하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부모가 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뿐이요, 가정의 환경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 대중회도 부모와 같은 입장으로 많은 장학금을 지불하라는 것이 아닌 동기부여의 활동이면 족하다고 본다. 즉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져 주자는 것이다.

대학에 합격한 자녀들에게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고 축하해주는

것이다. 첫 입학금의 일부라도 지원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집안을 알고 나와 집안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라도 입학 축하금과 축하회를 주관해서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행사를 제안하고 싶다. 둘째는 대중회를 통한 집안일에 대한 상담 및 문의구설치를 제안한다. 우리 집안은 유·불·선 사상에 젖은 전통사회의 풍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 가풍의 법도 또한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

특히 도암선조의 사례편람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관혼상제를 이 법도 그대로 관례로 삼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관습대로 막상 일을 실천하려고 하니, 대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50대 이상의 장손들만이 알 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안에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례에 대한 법도가 돈으로 해결 되는 일이 아닐진대 격식을 몰라 편의대로 일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허다하다. 한 예를 든다면 선조묘소에 대한 비석의 치장을 보면 관직이 없는데도 묘퇴로부터 깃을 씌운 비석이며, 비문도 한문자와 한글을 섞어 각자 하는 등 격식이 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조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러한 경우는 건치레만 생각했지 속치레없는 집안임을 자신들도 모르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아 차라리



睡蓮女圖

芝 村

눈보라 삭풍에도
긴 뿌리로 총생하는 수련

계절이 바뀌면
연못가에 잠긴 물속에서
또다시 피어나는 강인한 모습이
달달한 여인같이
더욱 돋보인다.

기러기 날아가는
조강포 들녘의 꽃들이 지면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리움은
하늘 끝까지 치솟아
큰 울음이 되겠지.

암자색 물결이 빛날 때마다
물과 잇단 그 아름다움은
수정바위 언덕에서
이제
삼베버선 자극따라 꿈만 남긴
수련너의 아득한 전설이 되었다.

- 故淑明人 沈賢福 百日齋를 맞아 -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대중회에 상담기구를 설치해 지도해 줄 때 그것이 대중회가 할 일이 아닌 것이 대중회가 할 일이 아닌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된다. 1996년도 소리없이 저물어 가고 있다. 새해에는 대중회가 체계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친일가가 모두 분발해서 첫 사업으로 작년대를 설치해 지도해 줄 때 그것이 대중회가 할 일이 아닌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된다. 1996년도 소리없이 저물어 가고 있다. 새해에는 대중회가 체계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친일가가 모두 분발해서 첫 사업으로 작년대를 설치해 지도해 줄 때 그것이 대중회가 할 일이 아닌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된다. 1996년도 소리없이 저물어 가고 있다. 새해에는 대중회가 체계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친일가가 모두 분발해서 첫 사업으로 작년대를 설치해 지도해 줄 때 그것이 대중회가 할 일이 아닌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된다.

牛峯李氏大宗會地域委員名單

| 지역 | 위원장 | 주소 | 전화 | 우편번호 |
|----------------|----------|-------------------------------|-------------------------------|---------|
| 경주, 영일, 포항, 기계 | 成 冠 | 경주군 안강읍 양원리 1208-3 | (0561)761-2865 | 788-800 |
| 대구, 의성 | 範 周 | 대구, 달서구 월성동 364 보성아파트 110-901 | (053)425-3811 | 704-400 |
| | 茂 軾 | 의성군 단원면 서계동 320 | (0576)862-0104 | 769-960 |
| 문경, 점촌과 그 일원 | 昌 茂 | 점촌시 신흥동 776 황제아파트 103-509 | (0581)555-2268 | 744-030 |
| | 載 寧 | 문경군 가은읍 왕능3리 537-10 | (0581)71-0116 (02)584-0838 | 745-900 |
| 대전, 옥천과 그 일원 | 建 茂 |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44 | (0475)32-2886 | 373-860 |
| | 光 茂 | 대전 대덕구 중리동 영진로알APT101동1503 | (042)631-8520 | 306-050 |
| 연기, 금산과 그 일원 | 功 茂 | 연기군 전의읍 관정리 사관정 | (0415)63-2858 | 339-850 |
| 청주, 청원과 그 일원 | 舜 寧 | 청주시 우암동111 평화APT 1동 511호 | (0431)55-8327 | 360-200 |
| | 崇 甫 |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94-7 덕일맨션 나동 204호 | (0431)274-9833 | 361-140 |
| 아산, 온양 | 元 寧 甫 | 아산군 음봉면 신정리 온양시 모충동 379-132 | (0418)43-0526 | 337-860 |
| | 國 學 院 4층 | | (0418)42-3230 | 336-040 |

| 지역 | 위원장 | 주소 | 전화 | 우편번호 |
|--------------------|-------|--------------------------------|---------------------------|---------|
| 보령, 서천 | 寧 |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 | (0452)33-4433 | 353-870 |
| 충주, 음성, 이천 진천과 일원 | 勝 範 | 음성군 금왕읍 행계리 151 | (0446)877-1060 | 369-900 |
| 원주, 횡성, 평창, 제천과 일원 | 星 九 秀 | 평창군 평창읍 하리 56 | (0374)32-2141 | 232-800 |
| | 秀 範 | 횡성군 횡성읍 목계리 151 | (0372)43-2107 | 225-800 |
| 용인지역 일대 | 敏 寧 |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412-2 조양맨션 3동 103호 | (0335)35-2714 | 449-800 |
| 수원, 화성과 인근 일대 | 茂 貞 | 수원시 권선구 탑동 103 | (0331)291-2081 | 441-440 |
| 김포, 강화, 옹진 지역 | 丙 周 | 김포읍 장기리 351-2(지경약곡) | (0341)85-7788 | 415-800 |
| | 茂 泗 | 김포군 월곶면 개곡리 66 | 82-1455 (0341)987-3545 | 415-870 |
| 양평, 광주와 인접 지역 | 丙 元 | 양평군 단원면 산유리 283 | (0338)73-0653 | 476-850 |
| 천안시, 군과 인접 일원 | 光 茂 | 천안군 동면 송린리 246 | (0417)64-9969 | 333-870 |
| 가평, 춘천 철원과 인근 | 周 衡 | 가평군 설악면 임소리 264 | (0356)84-7188 | 477-850 |
| 예산, 인근 일대 | 茂 魯 |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209 | (0458)37-6648 | 340-940 |
| 선산시 및 군지역 | 俊 寧 | 선산시 읍내동 686-1 공전빌라 A동 203호 | (0455)62-1987 | 356-020 |